

제49차 지역개발정책(Regional Development Policy)위원회 회의 (RDPC)

1. 출장지 : 프랑스 파리

2. 출장 기간 : 2023. 11. 12 ~ 2023. 11. 18

3. 출장자 :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

- 한국 대표단 구성 : 국토교통부 오성의 기획관, 김희천 과장, 임현아 사무관, 박형빈 주무관, 주희규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김명현 사무관, OECD 대표부 및 ITF 사무국 이랑 과장, 김남균 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문진 : 정문수 연구위원, 박형호 부연구위원

4. 출장 목적

- 2023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DPC,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산하 작업반 회의 토론을 위한 발표 자료 준비, 회의 참석, 한국 대표단 자문 및 외교부 전문 작성
 - 제49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위원회 산하 작업반(비도시작업반, 도시작업반, 다층적거버넌스 작업반, 지역지표작업반) 회의는 지속가능개발 지표 적용, 도시 및 지방정책 연계, 기후변화 및 기후행동, 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변화, 팬데믹 이후의 도시 정책, 국가 도시 정책(NUP), 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을 두어 도시·비도시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 간 정책경험 공유를 위한 자리임
 - 지역·도시 정책, 비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등 관련 토론 및 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OECD 내 한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회원국의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정책 연구 활용

5. 출장 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월12일(일)	인천		(12:10) 인천 출발	
		파리	(18:30) 파리 도착	

11월13일(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Working Party on Rural Policy (09:30-0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remarks (09:5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aster management and recovery in rural areas • Adapting service delivery models in rural areas to population change • Futures and foresight work to help rural policies (14: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ur de Table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r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 Functional Rural Regions - developing an internationally harmonised definition to better assess rural policies • Better forest management models in rural areas • Initiatives on Rural Development 	
11월14일(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09:0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remarks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reau designation for 2024 • New data sources and methods to measure activity and mobility • Improving spatial accessibility, service delivery, and demographic indicators (14:3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mpact of migration on local innovation • Improvement of measurement of activity in regions and cities • Updates on the the territorial analysis of business dynamics • Update on databases an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11월15일(수)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09:3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remarks 10:0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ies and urban policies in a multi-crisis new normal • Cities driving the climate and digital transitions (14: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wards zero emission buildings in cities •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ities • Other updates 	

11월16일(목)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09:30-10:00) • Opening remarks (10:00-13:00) • Place-based policies for the future • Reporting back from supporting Working Parties and Networks • Update on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ies (14:30-18:00) • Next steps in the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RDPC communication and policy impact • Launch of the OECD 2023 report Enhancing Rural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	
11월17일(금)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09:30-10:30) • Global relations (11:00-11:30) • Place-based policies for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14:00-16:00) •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 Horizontal initiatives and stakeholder involvement	
	파리		(21:00) 파리 출발	
11월18일(토)		인천	(17:05) 인천 도착	

6. 주요 논의 사항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 우리가 직면한 전세계적 문제, 기후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성장과 다양한 국제 정세, 지역 소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소 기반 정책이 필요함. 이와 함께 국가 도시 정책(National Urban Policies)의 활용과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 개발 및 구축 역시 중요함. 이러한 대응에 있어 전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임
- **지역지표 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 데이터 기반의 결과 도출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 개발이 필요함. 최근 지역 지표(region indicator)로 모바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이나 투어리즘 관련 정책에 유용함. 우리는 서비스 접근성 측정에 대하여 방법론 문제, 정책에의 적용, 관련성

등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함. 접근성 측정은 인구구조 변화 등과 연계 가능하며, 특히 소도시의 인구구조 변화, 소멸도시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밀접한 문제임. 또한 인구변화에 대하여 이민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호주에서 이민이 혁신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확인함. 이 외에도 벨기에 수도권 정책(Brussels-Capital Region)에 대한 워크숍, OECD 기후행동의 영향과 넷제로로의 전환, 접근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도시작업반(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 도시의 미래, 특히 주택 문제, 디지털화(digitalisation), 교통수단의 역할, 순환경제, 다양성, 글로벌 밸류체인, 웰빙, 푸드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함. 디지털 전환과 회복력을 위한 기후행동은 2030까지의 목표로 할 수 있으며, 도시-농촌 개발을 위해 장소 기반의 정책이 필요함. 스마트시티, AI, 머신러닝 등의 기술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활용 가능함. 장소 기반 접근은 탈탄소 빌딩, 저렴주택 문제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 가능함. 수도권은 개발지역과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함. 이제부터는 기존 빌딩에 초점을 맞춰야 함.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주택 문제나 전 연령을 위한 도시, 젠더 불평등 등은 AI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함
- **비도시 작업반(Rural Policy)** :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응 : 1) 농촌 지역의 재난재해 관리. 농촌의 재난재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여러 사례를 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 2)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이나 에너지 등에 있어 농촌에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장소 기반의 접근임. 캐나다 리포트에서도 나오 듯이 도시나 농촌에서도 젠더 이슈가 나오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에 농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웰빙에 초점을 맞춰 미래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함. 3) 정책은 도심과 농촌의 차이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함.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야함. 특히 농촌 지역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4) 혁신을 통하여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미국의 농촌 혁신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무엇이 농촌에 이점이 될지에 대하여 생각함. 디지털 트윈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기회와 잠재력을 최대화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에 함께 적용 가능할 것임

7. 관찰 및 평가

- 금번 제49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고령화나 인구 소멸, 기후변화와 같은 메가 트렌드의 도시정책 반영과 모바일, 모빌리티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 대한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계적인 도시정책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울러 주요 회원국들이 소개한 자국의 도시·지역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아이디어를 각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됨
- 한국 대표단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오성익 국장은 OECD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 사례, 특히 스마트시티 등의 소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

제45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s)작업반 회의 (WPTI)

1. 회의명

- 제45차 지역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14일(화), 9:30 ~ 18:15
- OECD Room CC02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확인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김명현 사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활동과 이동성 측정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 및 방법 (New data sources and methods to measure activity and mobility)
- 공간 접근성, 서비스 제공 및 인구학적 지표 개선 (Improving spatial accessibility, service delivery, and demographic indicators)
- 이민의 지역 혁신에의 영향 (The impact of migration on local innovation)
- 지역과 도시 활동 측정방법 개선 (Improvement of measurement of activity in regions and cities)
-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지역 분석 업데이트 (Updates on the territorial analysis of business dynamics)
- 데이터베이스 및 지역과 도시에 대한 업데이트 (Update on databases an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5. 주요 논의내용

(1) Opening session

- 제45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를 시작함
- 데이터의 국제적·지역 간 비교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회간 협업 중에 있음. 특히 접근성이나 서비스 제공, 주택 공급 등의 도시정책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의제와 요약기록에 대한 승인 요청 후, 승인

(2) [ITEM2] Bureau designation for 2024

- 내년도 사무국의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제출을 해주기 바람

(3) [ITEM3] New data sources and methods to measure activity and mobility

- (Secretariat 발언) 기존 데이터의 개선과 함께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데이터 구축, 월간 데이터 생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이러한 데이터는 유럽연합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활용 가능함. 새로운 데이터 소스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적용 중이며, 특히 투어리즘이나 온라인 관광 자료, 관광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자료, 디지털 사용 자료 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가 여행자고 누가 거주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추후 서베이와 사례 연구 등과 연계하여 과제화 할 계획임
- (MIT 연구진 발표: Street knowledge. activity and mobility using high-frequency data : 전체 도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축함.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캐나다를 사례로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광범위한 위치 확인 등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고, 특히 투어리즘에 활용 가능함.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무엇이 매력적인 장소를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람들이 머무르는지, 비슷한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머무를 경우 클러스터를 형성, 유의미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하여 매력적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도시 요소와 연계하여 유인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50×50 그리드로 데이터 생성 및 분석하고, 개별 시설물(호텔, 서비스, 어메니티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면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정책결정자에게 도움이 됨. 이 외에도 활동적 클러스터(active cluster), 스트리트 뷰의 활용, 맵핑, 스페이스 신택스 기법(space syntax) 등을 통하여 깔끔한 그래비티와 같은 매력적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스웨덴 발표: Measuring regional tourism and tourism's environmental impact in the Nordics) 투어리즘은 일상적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음. 스웨덴을 사례로 신

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새로 구축한 결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세세한 서비스 제공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특히 비자와 마스터 카드, 현금, 여행사 자료 등을 서로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소비 비중과 특성이 비자와 마스터가 서로 다른 모델을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일상적 생활의 경우 자택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한 달에 21일 이상 소비됨. 투어리즘에 활용할 경우, 월간, 시즌별 소비 패턴이나 타겟 그룹과 국가 등을 나눠서 분석 가능함.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온라인 소비에 대한 제약과 모델 개선 필요성이 있음

- (호주 발표: Tourism measurement using mobility data) 통신 데이터 사용에 있어 데이터 질에 대한 논의, 즉 robust statistical processes가 필요함.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새로운 데이터 소스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어려움. 하지만 모빌리티 데이터와 같이 매 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는 빠른 대응을 위해 필요함. 특히 재난재해 발생 하루 뒤 사용 가능한 리얼타임 데이터임. 그러나 데이터 클리닝 등에 4일 정도 소요됨. Telco data의 경우 다른 빅데이터와 달리 일반적 기기 사용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되고, 샘플 플수가 크고, 가중치가 작은 특징이 있음. 또한 멀티모델 서베이 콜렉션을 통하여 정제됨. 인구, 통행 빈도 등 미싱 정보 연계를 위한 GPS 데이터 활용이 가능함. 위치정보에 있어 GPS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투어리즘 지역 확인을 위해서는 충분함. 데이터 개발에 몇 년이 소요되었고, 거주인구 자료 등과 연계됨.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분기별 분석 결과, 방문객 변화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였음. 새로운 모델이 2025년 초 나올 예정이며, 2024년 동안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하고, 모빌리티 데이터와 서베이 등에 대한 융합 방법을 고민할 예정임. 또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예정임
- (포르투갈 발표: Pharmacies catchment areas based on E-invoicing data) 인보이싱 데이터 사용의 경우, 사업체의 위치에 대한 좌표 확인이나 개발 기업의 자료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시설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택스 넘버와 연계하여 가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방법임. 이를 통하여 가구의 가스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구축하고, 거주지 중심으로 오피셜한 통계와 비교할 수 있음. 또한 UK 비자의 경우 기존 통신 데이터와 연계하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
 - (유럽 연합 발언) 포르투갈 에너지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 패턴 이외에 커버가 가능한지 의문임
 - (한국 발언) 한국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통계청에서 구축하고, 이를 국토 정책에 활용함. 소득과 소비 등 민간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하며, 민간 데이터는 통신과 신용카드 자료 등 다른 수집처에서 포인트 자료로 제공됨.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향후 민간부분의 자료 활용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 발언) 민간부분의 데이터 활용의 경우 협상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발표에서 나온 것과 같이 거주지나 사업체 위치 정보와 같이 정보에 빈 부분이 생김. 또한 시계열 자료의 경우 각각 센서스 트랙 등 공간적 범위가 다를 수 있어서 연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영국 발언) 호주의 경우 어떻게 데이터를 조정하였는지 궁금함. 모든 유형의 데이터 활용은

의 어렵고, 특히 모니터링에 제약이 많음. 통행 데이터로 투어리즘을 분석했는데, 실제 활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자와 마스터 카드 조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함

- (디렉터 발언) 신용카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소스는 잠재적 가능성은 높으나 완벽하기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4) [ITEM4] Improving spatial accessibility, service delivery, and demographic indicators

(4-1) [ITEM4.a] Reporting from the working group on an Accessibility manual

- (의장 발언) 기존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방법적 문제인 것 같음. 데이터 소스나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를 바람
- (에스토니아 발언) 교육이나 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함. 특히 헬스케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까지의 접근 자료 등이 요구됨
- (한국 발언) 한국의 경우 접근성 측정을 위해 500×500 픽셀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최단거리를 산정함. 표준화와 같은 방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접근성 측정 방식과 함께 종속변수가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면, 보행, 자전거, 자동차 등 통행시간 역시 다양화될 수 있음
- (Secretariat 발언)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위치정보 수집 후 집계 문제 있음.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이 중요함

(4-2) [ITEM4.b] Building capacity to adapt school networks to demographic change

- (Secretariat 발표: Re-organising the school network) 인구변화에 따른 학교 네트워크 변화 방향에 대해 고민함. OECD 국가별 교육 서비스 제공에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최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 간 학교 위계에 따른 불평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라트비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원에 대한 OECD 보고서의 목적은 학교까지 접근성과 비용을 측정하여 재구조화를 위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임. 주요 발견으로는, 먼저 학교 밀집도가 인구 밀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며(도시, 타운, 저밀도 마을, 초저밀도 마을로 갈수록 밀집도가 낮아짐), 이에 따라 접근성과 비용에 있어 해결 과제로 서비스 제공 최적화를 위한 재구조화를 모색함. 교육의 질(시험 성적) 비용(학교 운영 비용), 접근성(학교까지 운전 거리)를 기준으로 접근성과 비용을 4개 유형으로 구분(HH, HL, LH, LL)하고, 학교 재구조화 잠재력을 파악함. 먼저, 밀도를 늘리면 운영 비용이 감소하는데, 그 차이는 학교 위계(초, 중, 고)에 따라 다르며, 지역 단위에서는 저밀 지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됨. 양호한 접근성은 도시에 있으나 타운의 경우 모든 학교 유형에 접근성이 좋음. 농촌(비도시) 지역은 접근

근성이 낮는데, 특히 중학교가 가장 심각함. 따라서 학교 재배치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대표 학교를 정하고, 학교별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인근 학교로 학생 재배치하고 선택된 학교는 폐교해야 함(one-size-fits-all). 이러한 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은 학교 건물 개보수, 설비 확충 등에 활용하며, 학교 통폐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재정적, 행정적 효율성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을 위한 훌륭한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함

- (라트비아 발언) OECD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질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과 자료 구축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알게 됨. 어느 규모의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와 논의해서 학교 재구조화가 가능할 것임. 이는 거리와 비용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음. 추후 학생과 선생님의 건강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하여 과제를 진행할 예정임
- (스웨덴 발언) 해당 사례는 지나치게 탑다운(top-down)적 접근임. 지방학교에서도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커리큘럼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됨.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모두가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는 계속 변할 것임. 오히려 좋은 선생님을 제공한다고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
- (독일 발언) 최적화 방안이 있어 인근 학교의 병합은 가능하나, 지방의 경우는 문제가 있어 보임. 인근에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방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음. 연구 결과는 너무 규모의 경제에 치우친 느낌이고, 지방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루마니아 발언) 소멸하는 도시의 정부 재정에 있어서는 효율적 방법일 수 있으나,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미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학교 병합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라트비아 발언) 유연한 피드백 감사함.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임. OECD 연구 결과는 활용만 할 뿐, 최종 결정은 학교에서 할 일임. 하지만 학교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높은 비용문제 해결에 있어 통폐합이 좋을 수 있음. 무엇보다 우리 교육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 제공임

(4-3) [ITEM4.c] New data sources for analysing demographic change and service provision

- (Secretariat 발표: Shrinking smartly and sustainably. Demographic scenarios)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턴에 따른 지역 유형화가 가능함. 특히 연령별 구성에 따라 소멸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를 확인함. 인구구조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가 통계청인 Eurostat의 TL3, 지자체, 그리드 단위의 2000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연령별 그룹화, 자연적 변화, 인구 이동, 국내외 이주, 연간 변화 등을 확인함. 특히 인구변화 방향과 강도, 변화 요인(자연적 변화, 국내외 이동) 등을 시계열 분석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유형화함. 분석 결과 동아시아, 동유럽 및 남유럽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인구감소를 경험 중임. 스페인의 경우 자연적 변화로 인한 감소가 심했고, 도시에서 멀수록 감소 정도가 심각함. 이탈리아는 남에서 북으로 인구 이주(internal migration)와 자연적 변화가 감소의 원인임. 시계열 변화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진화방향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방도시는 자연적 변화가 마이너스 효과인 반면, 도시는 빠른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음. 인구 교류는 대도시로의 이주가 주임. 다음 단계에서는 감소(shrinking)를 정의하고, TL3와 지자체 단위에서 분석할 예정임

- (노르웨이 발언) 국내외(internal and international) 이주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 (유럽 연합 발언) 분석 단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인구구조 변화를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베이비부머의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함. 이들이 대규모 이동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Secretariat 발언) 데이터가 모든 회원국 나라에서 사용 가능할지 의문임. 또한 2차 이주(secondary migration)에 대해서도 고려할 예정임

(4-4) [ITEM4.d] Settlement network growth, service provision and public transport connectivity

- (Secretariat 발표: Settlement network growth, service provision and public transport connectivity) OECD 국가 내외 접근성을 거주지역(settlements)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이를 위해 거주지역 규모, 도시까지의 거리, 인구 변화, 통행 시간과 통행수단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함. EU에서 대도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는 느리게 성장 중임. 여러 지역에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타운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인구 변화에 부정적 결과가 보임. 도시에서 30분 이내 위치하는 등 대도시에 근접한 타운일수록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음. 지역 중심은 중소도시보다 성장 속도가 빠름. 높은 서비스 제공(higher service provision)은 높은 인구 증가와 연계되어 있으며, 중소도시 인구는 성장하거나 덜 감소하는 등의 파급효과가 있음. 교통에 있어 대부분의 서비스까지 30분 또는 1시간 내 도착 가능하며, 보도 1km 이내, 대중교통 30분 이내에 연결됨. 다음 단계로는 서비스 클러스터를 좋은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비스 제공과 교통 접근성간 관계를 파악할 계획임. 이를 토대로 무엇이 인구구조 변화를 논할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할 예정임
- (노르웨이 발언) 주택시장이 이주 패턴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음. 재정적 문제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함
- (루마니아 발언) 중소도시 분석에 감사함. 도시 규모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흥미로움. 지난해 성장도시, 정체도시, 감소도시를 유형화하였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환경 변화를 파악,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Secretariat 발언) 주택시장은 좋은 지적이고,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일정 시점에 데이터 누락이 있음. 주택가격과 데이터 누락 문제를 해결해서 발전시킬 예정임

(5) [ITEM5] The impact of migration on local innovation

- (연구진 발표: Global trends in patenting and inventor mobility) 특허수와 모바일 발명 점 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각 나라별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고급인력 확보 경쟁 중임. 이주(migration, 또는 이민)는 기술 이전을 야기하고, 이는 혁신(innovation)으로 연결됨. 미국의 경우 인도와 중국계 인력을 통한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이주 후 세대(natives) 사이에서 혁신이 생성됨. 이주 노동력은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의 성장에 따른 현지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스위스 국경 근처의 이탈리아 회사들은 생산성이 작고, 급여가 낮은 반면, 스위스는 이주 세대에 따른 임금 상승이 있음. 또한 해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비이주의 기술력이 증가하기도 함. 결국, 이주민 정책은 숙련 기술자 유입을 통한 혁신으로 연결됨. 대신 빠져나간 지역은 기술력 부족을 겪을 수 있음
- (Secretariat 발표: Migration, labour markets and innovation) 호주 재무부 인구정책과 (Treasury's centre for population)와 협업한 결과, 호주의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이민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였고, 이의 생산성, 노동시장, 혁신 등에의 영향력을 지역 수준에서 파악함. 분석 결과, 이민의 지역 혁신 영향을 파악함. 호주는 OECD 국가 중 이민 교류가 많은 나라로, 전체 인구의 29% 정도를 차지함(OECD 평균 11%). 지난 20년 동안 비중이 약 6%p 증가하였으며, 이민자들은 호주 내에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함. 이민은 기존 노동력에 혜택을 주는데, 취업률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급여에는 영향이 없음. 이민은 지역 혁신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지역 내 특허 활동을 늘리고, 많이 교육받은 이민자들의 영향이 더욱 크며, 혁신이 덜 일어난 지역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음. 하지만 디자인이나 상표권에는 영향 없음. 이민자의 특성, 교육 수준, 경제 구조에 따라 이민의 지역 경제의 영향이 얼마나 다를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음
 - (노르웨이 발언) 이민자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생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숙련된 이민자와 비숙련 이민자의 비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금 교섭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네델란드 발언)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교육을 받아 똑똑하기는 한데, 폭력에 취약한 느낌임. 문화한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요소임
 - (스웨덴 발언) 호주는 배타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함. 이민자들의 경우 그들이 문화적·교육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함
 - (연구진 발언) 노르웨이 발언처럼 이민정책에 있어 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도 있음. 호주의 경우, 높은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다른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임금으로 드러남
 - (Secretariat 발언) 이민정책은 GDP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GDP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Secretariat 발언) 난민문제를 생각한다면, 비숙련 노동자들이라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 있음. 문화적 다양성은 혁신에 매우 좋은 요건으로, 충분한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
- (한국 발언) 이민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모두에게 좋지는 않음. 일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개방성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님. 한국의 경우 이제야 이민을 환영하고 있으나, 일반 사람들이 환영할지는 모르겠음

(6) [ITEM6] Improvement of measurement of activity in regions and cities

(6-1) [ITEM6.a] Update on improving measurement of Regions in Globalisation

- (Secretariat 발표: Update on improving measurement of regions in globalizaion) 세계화 지역의 국제화 정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을 측정함. 특히 지역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상대적으로 큰 단위(TL2)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웹사이트(웹링크)에 있어 강력한 연결을 확인함. 영국에 있는 회사는 웹링크를 통하여 마케팅이나 교통, 제조업 등에 있어 스코틀랜드와 해외 나라와의 연결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진 것을 파악함. 특히 서비스 수출에 있어 웹링크는 최적의 수단임
- (미국 발언) 제조업체의 웹링크에 있어 공급자 측면의 분석인 것 같음. 고객 입장에서의 분석은 미흡함. 양방향으로 분석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 (유럽 연합 발언)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본사 위치와 같은 정보는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궁금함

(6-2) [ITEM6.b] Advanced OECD Smart City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

- (Secretariat 발표: How can smart cities boost the net-zero transition) 스카트 시티의 넷제로 전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인구당 배출량은 소외지역(remote region) 보다 작음을 확인함. 따라서 소득이 높은 도시는 생산 기준(production-based)이 아닌, 소비(consumption-based) 기준의 배출을 고려하여야 함. 스마트시티의 예로, 빌딩 부문에서는 스마트미터를, 에너지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교통 부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라이드 셰어링, 스마트 교통 경고 시스템,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순환 에너지 측면에서 배출량 감소용 건축물 자재나 건설공사에서 디지털 수단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함. 스마트시티 성과 측정을 위한 스마트시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 스마트시티 퍼포먼스 지표(1인당 에너지 소비량,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량, 대중교통분담률, 전기차 비중 등)를 사용할 수 있음
- (한국 발언)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 및 기후변화 문제를 기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라마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도시 인프라에 관련 기술을 적용, 특히 대중교통에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도시기술 제공을 위한 플랫폼이 있고, CCTV 등의 수단은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함. OECD는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한국 또는 다른 나라를 사례로 스마트시티 지표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7) [ITEM7] Updates on the territorial analysis of business dynamics

(7-1) [ITEM7.a] Chair's summary of the technical workshop "new approaches to understand business conditions and links between firms"

- (의장 발언) 기업 간 비즈니스 상황 및 연계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기술 워크숍 결과, 일부 발표는 매우 기술적이었고, 몇몇 시사점은 매우 도움이 됨. 데이터 기반의 시사점과 모델 등은 많은 나라에서 적용 가능할 것임. 우리는 공유 가능한 다양한 자료가 있으며, 교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기관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7-2) [ITEM7.b] New territorial indicators on "scaling up"

- (Secretariat 발표) OECD의 여러 연구에서 회사 성장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근 노르딕 국가들의 스케일 업(scaling up)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가짐. 새로운 공간 지표로 스케일러(scalers, 자신도 성장하면서 주변의 성장을 이끄는 기업)의 성격과 성장 경로, 일자리 생성의 효과 등을 파악함. 새로운 일자리가 스케일러에 의해 생성됨. 스페인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음. 그 다음이 메트로폴리탄에 가까운 지역이며, 루마니아의 경우도 비슷함. 이러한 '스케일 업 모델(scale-up model)'에 있어 전략적 스케일러는 스케일링 업 이전에 혁신과 생산성에 투자하고, 변혁적 스케일러는 생산성 증가를 이룸. 스케일링 업 과정에서 확장형 스케일러는 그들의 기존 사업모델을 더 큰 규모로 복제하면서 성장함. 크로아티아와 포르투갈의 TL2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함. 향후 스케일러와 관련된 지표 개발과 정책 맵핑을 올해 안에 끝내고,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한 뒤, 정책시 맵핑과 결합하여 최종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임
- (영국 발언) 데이터 세트의 범위가 너무 크게 아닌가 걱정됨. 이러한 경우 스케일러의 위치적 이슈와 일자리 생성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힘들. 또한 일자리 감소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함
- (미국 발언) 스케일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음. 이 외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사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 규모, 등 더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8) [ITEM8] Update on databases an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8-1) [ITEM8.a] WPTI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ction on Climate

- (Secretariat 발표) 기후행동계획(IPAC)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지표는 OECD 회원국을 포함, 51개 국가에 달함. 지표 분석을 토대로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기

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기후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바람. 또한 정책적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있고, 1년 단위의 기후행동 모니터를 연간 단위로 분석하므로, 대시보드를 통하여 연간 모니터링이 가능함. 국가 단위로 지표를 분석하기 때문에, 전세계적 공감과 넷제로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51개 IPAC 국가 중, 2021-2022년 사이에 기후행동이 가장 강조됨. 하지만 가뭄과 같은 재해에 있어서는 지역 단위 분석이 필요함. 온실가스 배출은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1인당 배출이 호주의 경우 일부 지역은 매우 낮음. 기후정책에 있어 지역의 경제적 지표와 연계가 필요함. 지역 단위 자료와 함께 부문별 검토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TL3 수준으로 분석해야 함

- (아일랜드 발언) 국가의 경제 상황이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함
- (Secretariat 발언) 지역 단위로 분석 예정임
- (한국 발언) 분석 결과가 기능적 지역에 관계된 걸로 보임. 산업도시의 경우 CO2 배출이 다른 도시 지역보다 클 수 있음. 하지만 자동차 이용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배출량은 또 많아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비도시지역에 있어 무엇이 구조적인 해결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여기서 압축도시가 해당될 수 있음. 주택과 쇼핑센터 등이 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됨. 도시의 확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으므로, 배출량 감소를 위해 압축도시를 제안함
- (Secretariat 발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내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며, 지방도시의 경우 교통분야가 배출이 높음. 해당 이슈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 발언)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비도시지역은 좀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됨.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교통 부문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음. 하지만 더 많은 자료 분석을 통하여 교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확인해야 할 것임. 또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접근도 필요함

(8-2) [ITEM8.b] Preliminary table of contents of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4

- (Secretariat 발표) 사무국은 2024년 “OECD regions and cities” 보고서 예비 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함된 콘텐츠로는 경제 활동의 거시적 트렌드, 노동시장의 미래,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생산성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 생활 수준과 균등한 기회, 기후 위기, 생활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적 영향, 자동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지표, 불평등이 기회와 공공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또한 정책적 이슈는 최근 건강, 교육 등의 자원에의 지속가능한 접근성 등에 대해 파악, 헬스케어, 교육, 대중교통, 인터넷 연결 등에 대한 접근가능한 지표와 가능한 데이터 소스 등을 제시할 것임. 2024 5월 논의할 예정이며, 11월 허가 예정임

(8-3) [ITEM8.c] Information about the new OECD DotStat to access regional and metropolitan databases

- (Secretariat 발표) OECD의 새로운 데이터 포털은 광역 데이터를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였고, 지역과 도시의 세부 주제(사회, 경제, 고용, 교육과 기술, 건강, 과학, 기술, 혁신, 환경, 기후변화 등)와 관련된 자료를 OECD 홈페이지(oecd.stat., oecd data explorer 등)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테이블 수준과 레이아웃 확인이 가능함

제34차 도시정책(Urban Policy)작업반 회의 (WPUR)

1. 회의명

- 제34차 도시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15일(수), 9:30 ~ 18:00
- OECD Room CC02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확인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김명현 사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다양한 위기의 뉴노멀 시대의 도시와 도시 정책 (Cities and urban policies in a multi-crisis new normal)
- 기후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도시 (Cities driving the climate and digital transitions)
- 도시의 탄소배출제로 빌딩을 향해서 (Towards zero emission buildings in cities)
- 도시의 포용적 성장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ities)
- 기타 업데이트 (Other updates)

5. 주요 논의내용

(1) Opening session

- 지난 6월 회의에서는 지역 정책과 도시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의제와 요약기록에 대한 승인 요청 후, 승인
- 지난 20년 동안 전 지역에 걸쳐, 특히 대도시에 큰 변화가 있어남. 불평등이 증가하였으

나, 장소 기반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오고 있음. 디지털(digital),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디지털 전환, 넷 제로, 통신사 데이터의 활용, AI 알고리즘,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여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에 대한 디지털 모델 중 하나임. OECD는 넷 제로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기후 회복력과 기후행동 및 대응 문제에 대해 논의 중임. 기후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 순환경제 등등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 연구도 이루어져 새로운 보고서과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지난 10월에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글로벌 포럼은 2024년 3월 예정임. 카이로에서 열릴 세계 도시 포럼에서는 글로벌 아젠다로, SDGs, G7, 주택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2) [ITEM3] Cities and urban policies in a multi-crisis new normal

- (Secretariat 발표: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preliminary results from the country survey) GSNUP(2024, 3rd edition)에는 모니터링 지속, 변화와 트렌드 확인, 정책 영향력 측정의 내용을 포함함. 국가 도시 정책(NUPs)이 어떻게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저렴하고, 적합하며, 지속가능한 주택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함. NUP에 대한 국가 서베이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통합적 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7개 국가가 참여함(한국 포함). 서베이 결과, 1) 31개 OECD 국가들의 90% 정도가 NUP를 가지고 있음. 27개는 가지고 있고, 18개 국가는 명시적(explicit) NUP를 가지고 있음. 2) NUP는 국가의 도시 체계에 있어 전략적 수단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부문별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함. 3) 환경의 질과 기후행동, 도시 체계와 네트워크가 최근 빈번하게 NUP에서 논의되는 두개의 주제임. 4) NUP는 도시계획과 설계, 제도적 개선의 영향을 전달하는 역할임. 실질적인 결과와 개선으로 이어짐. 5) NUP는 생태적, 기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7)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은 주택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 앞으로는 서베이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며, NUP의 구조, 범위, 실행, 결과 등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임. 논의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음: 1) NUP에 있어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2) 명시적 NUP나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떠한 혜택을 가져오는지 근거가 있는가? 3) OECD의 원칙을 각 나라의 도시정책 또는 정책 평가나 모니터링 등에 반영하는가?
- (유엔 해비타트 발언) NUP와 새로운 도시 의제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임. 하지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어떠한 데이터를 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함
- (일본 발언) OECD 멤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면 데이터는 국가마다 다양한데,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할지를 모르겠음. 일본은 최근 국가 계획을 재수정하면서 거주 지역,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산업, 녹지, 국토 관리 등의 주제들을 포함함
- (미국 발언) 연방 정부에 있어 도시 정책에의 시사점은 매우 유용함. 하지만 서베이에 NUP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영국 발언)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데 도시 정책의 영향은 무엇인가? 도시정책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정의의 문제임. 영국은 불균형 감소가 계획에 있어 주요 주제이며, 압축도시나 글로벌 연결, 경쟁력 강화. 인타운에 대한 지원 등이 중요한 원칙이었음

- (터키 발언) 우리는 도시의 회복력 증가에 힘을 쓰고 있음. 도시 내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전환, 밸런스 등에도 초점을 맞춤
- (이스라엘 발언) 밀도 관련해서 대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어떻게 계획할지의 문제에 직면함.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공간 전략 계획에 OECD의 원칙을 반영하였고, 물리적 도시환경에 초점을 맞춤
- (불가리아 발언) 우리도 명시적 NUP를 가지고 있으며,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모든 이해관계자들, 정책개발자들이 활용하기에 유용함. 정책에의 반영이 쉽고, 가이드를 주기도 좋음. 정책을 평가하기 더 쉬운 장치 같음
- (독일 발언) 우리도 명시적 NUP를 가지고 있음. 주택정책이나 NUP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스웨덴 발언) 우리도 명시적 NUP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지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효율적인 것 같음. 우리는 새로운 도시 의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부문별 계획, 특히 교통 시스템과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한국 발언) 우리도 명시적 NUP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 과정에서는 힘들긴 한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함. 우리는 공개된 논의를 통하여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인구감소, 노화,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주택 공급과 일자리 등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 이용의 두려움 때문에 일자리 근처에서 살기를 바람. 그래서 우리는 도시 범위를 넓이기 보다는 압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시혁신구역(urban innovation zone)을 도입, 지상과 지하의 다층적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이 중요한데, 이는 다음번에 논의함
- (의장 발언) 부문별 계획, 예를 들어 주택, 교통 등에 있어 NUP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최근 정책은 좀더 통합적 계획으로 가는거 같으며, 특히 기후변화나 사회경제 등 부문별로 연결된 문제들이 많음. 도시정책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장이 될 수 있음

(3) [ITEM4] Cities driving the climate and digital transitions

(3-1) [ITEM4.a] On the road to COP28: A Territorial Approach to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 (Secretariat 발표: The post-pandemic city: pathways to resilience in a multi-crisis environment)
 - 1) 첫번째 패러다임dml 전환 : 원격업무나 중개 도시(intermediary cities)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함. 많은 파리 학생들이 소도시로 이동,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변화하는 도넛 이펙트가 발생함. 도심보다는 주변, 교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교외 생활과 도심을 연결하고자 함. NUP에서는 균형있고 다핵형의 질 좋은 도시화, 스마트 시티, 특히 넷제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함. 2)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 도심의 기후영향으로 열섬이 발생하고, 저소득층과 같은 일부 그룹은 더욱 어려움을 겪음. 한파섬 역시 마찬가지로이며, 에너지 문제가 발생함. 기후변화 대응

은 더욱 깨끗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접근성을 높이고, 저탄소화 주택과 빌딩을 활용하고, 에너지 감소와 물 위기에 대응하며, 선형 모델에서 순환경 경제로의 변화를 위해 공유 경제를 활용하는 등, 자연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대응 가능함. 또한 주거단위에서 생물다양성 도시(biodiverse cities)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3)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의 도시 재편성 : 성장과 웰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팬데믹 등에 도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됨으로써, 기회의 공간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람 중심의 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함.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응한 전 연령을 위한 변화가 필요함. 좀더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여야 함. 리쇼어링(reshoring)과 재제조(remanufacturing)를 통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이전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함. 메트로폴리탄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과 기술, 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블루 이코노미를 통하여 취약성을 재화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각 나라들은 어떻게 도시정책을 개선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공정 전환(just transition),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성에 있어 도시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2) 통계 유형이나 국제적 예시 제시 등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 (Secretariat 발표: A territorial approach to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리포트) 기온 상승 중이며, 2030년 전까지 1.5 상승이 예상됨.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 워크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OECD territorial climate indicator framework'을 발표하였고, 온실가스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및 취약성 대응에의 가능성을 파악함. 최근 정책에 있어 지역적 접근방향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장소 기반의 중앙 및 지방정부 단위 기후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개발정책의 목적의 기후 부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부문별 접근에 따른 이원화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기후 행동과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후 대응력 향상을 취약한 사람과 지역에 맞춰 이해도를 높이고, 부문을 넘어 통합적인 과제를 통하여 시너지를 높이며, 도시와 지역을 지원하고 정부 위계에 따른 강력한 협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2) OECD의 지역 기후 지표는 모두 45개로, 온실가스 배출 관련 19개, 영향과 위기 관련 20개, 행동 6개 지표로 구성됨. 모두 대시보드에서 확인 가능함. SDGs 목표에 사용 가능한 지표들로, 노란색은 지역(regional) 단위에서, 녹색은 광역(metropolitan) 단위에서 사용 가능함. 3)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영향, 취약성 등을 분석한 결과, 아직 넷제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14%만 목표보다 낮은 배출량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소외지역(remote region)에서의 배출이 많음. 대도시가 인구당 배출량은 가장 작으나, 지난 20년 동안 기개발지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보다 더욱 빠르며, 기후영향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 4) 이에 따라, 장소 기반의 기후정책 관점 통합, 모든 지역 단위에서의 기후에 강한 지역개발 정책 수립, 지역의 기후행동과 회복력 고도화 등을 제안함
-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12월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때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기후 행동과 회복력에 대한 지역적 접근(territorial approach to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보고서 작업을 착수하고, 런치하고, 지역적 기후 행동에 대한

-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특히 지표를 토대로 정책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 실행할 계획임
- (OECD 환경 디렉터 발언) 기후정책과 행동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음. 기후행동 지역의 수요가 필요하며, 특히 재정적 문제가 중요함. 이는 지난 2년 동안 작업한 과제임
- (의장 발언) 넷제로 달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3-2) [ITEM4.b] Smart cities and AI

- (Secretariat 발표) 어떻게 스마트시티가 넷제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가?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이 기후 및 디지털 전환을 가져옴.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소외지역보다 낮음. 빌딩, 에너지, 교통, 순환경제, 도시계획 부문들에서 어떠한 스마트도시 수단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스마트시티 수단의 확장(scale up) 문제는 인프라 부족, 자원 부족, 표준화 및 통합 문제, 역량 부족 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데이터 문제는 개인정보, 불평등 확대, 시스템 문제(붕괴)나 환경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넷제로 목적에 부합함. OECD 스마트시티 측정 프레임워크에는 스마트시티 차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스마트시티 행동 등이 있음. AI가 SDGs 실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교통, 에너지, 안전, 건강 등 부문에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음. 하지만 AI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문제임
- (한국 발언)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을 적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국가별 다양한 전략이 있음. 한국의 경우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공간인 도시 플랫폼을 통하여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고 있음. 특히 신도시 건설에 있어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이런 플랫폼은 cctv와 연계하여 경찰이 사용 가능하고, 여러 지방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음. 플랫폼과 관련된 성과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 제공하였고, 현재 시민 및 기업과 협업하여 스마트 솔루션을 발전할 계획임
- (스웨덴 발언) 어떻게 AI가 지역 단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AI의 위험에 대해서고 고민해야 함. 기후변화,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역량이 있어야 가능할거 같음. 대도시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수 있음
- (루마니아 발언) 디지털 전환 등에 있어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데이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됨
- (네덜란드 발언) OECD의 스마트시티 측정 프레임워크는 매우 도움이 될거 같음.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 줌
- (일본 발언)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대중교통에 사용 중이며, 특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데이터 발굴, 분석, 등등에 사용 중임

(4) [ITEM5] Towards zero emission buildings in cities

- (Secretariat 발표) 'OECD 프로그램 on decarbonising buildings in cities and regions. 2022 - 2024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진행함. OECD 글로벌 서베이 진행 후, 국가와 도시들이 현

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이해하도록, 분석 결과를 제공함. 글로벌 서베이에는 38개국 OECD 멤버가 참여하였고, 25개국이 완료함. 정책 우선순위는 기존 빌딩에 초점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순환경, 탄소 구현(embodied carbon)을 통한 에너지 전환, 자원 재활용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넷제로는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로 변화되어야 함. 스웨덴의 경우 모든 빌딩에 관련 정책 적용 중임. 이와 함께 보다 혁신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함. 석탄연료가 아닌 탄소 규제 구현(embodied carbon regulations)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미 네델란드는 천연가스로의 전환을 진행 중임. 현재 참여국의 60%가 빌딩 탈탄소 측정을 통하여 가난과 불평등을 감소하고자 전략을 가지고 있음. 논의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음: 1) 빌딩에서의 넷제로 달성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안은 무엇인가? 2) 빌딩의 탈탄소를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일까? 각 회원국들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관련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빌딩과 기후에 대한 국제 포럼(Global Forum on Buildings and Climate)과 같이 어떻게 국제적 협력이 회원국들의 발탄소 빌딩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가?

- (일본 발언) 현재 일본은 다양한 거버넌스가 참여하여 주택정책을 순차적으로 개선 중에 있음. 빌딩 에너지 효율성 측정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만들고, 이를 주택에도 의무화하여 적용 중임. 앞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기존 건물에도 적용할 예정임. 글로벌 서베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OECD의 글로벌 포럼에도 참여하여 논의하고 싶음
- (네델란드 발언) 제로에너지와 탄소배출 관련해서 주택 재료의 총 규모를 정해야 하는지 고민임. 우리는 난방과 냉발에 있어, 저에너지 전환을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축 빌딩에 적용 중임.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방정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나누고 함께 고민 중임
- (이탈리아 발언) 공공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먼저 달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0% 리펀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미국 발언) 연방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가정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힘쓰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에게는 에너지 절약 코드와 펀드를 제공함. 이 외에도 기후 회복력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그린 에너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독일 발언)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저탄소 행동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자재 사용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신축 빌딩 건설에 있어 지역 난방 펀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물을 위해 최근 신축 건축물의 재료 문제에 대한 펀드도 구상 중임
- (한국 발언) 에너지 소비에 따라 빌딩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로드맵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빌딩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공공건물 먼저 제로에너지를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민간부분을 전환할 예정임. 또한 기본 디자인 표준안을 작성, 이를 공유하고 있음

(5) [ITEM6]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ities

(5-1) [ITEM4.a] Housing affordability, quality and sustainability in cities

- (City of reykjavik 담당자 발표)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정책에 주택정책과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이 연계되어야 함. 뉴욕이나 런던 등에서 도시 차원에서 주택 아젠다와 기후 아젠다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큰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함. OECD 챔피언 시장 포럼에서, 주요 시장들이 주택과 기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새로운 의장을 선정함
- (Secretariat 발표: Housing affordability, quality, and sustainability in cities) 6차 챔피언 시장 미팅에서는 도시에 있어 주택 위기가 논의됨. 10개의 정책 시사점을 강조함. 특히 브뤼셀 블루프린트(Brussels Blueprint) 정책적 결과 보고에 있어, 5개의 정책적 약속을 제안함. 첫번째 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시의 생활비 문제를 논하고, 두번째에는 모든 도시에 대한 주택의 새로운 접근을 얘기함. 주택 위기 대응 측면에서 체코의 하우스 리폼 정책을 소개하였는데, 체코는 도시에서의 저렴한주택 부족으로 주택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정책은 우크라이나 난민촌 문제 등에 적용 가능함. 또한 비영리 및 제한적 수익(limited profit) 기관의 역할을 늘리고, 토지이용과 공간계획, 토지 기반 재정 수단을 강조하는 등의 정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도 중임
- (네덜란드 발언) 주택 부문에 있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OECD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음. 유럽국가들의 협력과 펀딩 사용 등을 고민할 수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중간소득 그룹이 주택시장에서 내몰리고 있음. 이는 렌탈 마켓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음. 중간소득 그룹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에 맞춰서 특히 재정적 수단에 있어 좋은 사례나 성공적인 모델링 전략을 제안받고 싶음
- (미국 발언) 미국의 경우 원 유닛 형태의 주택이 일반적임. 도시에서는 모기지 문제가 있어서, 주택의 상업용으로의 전환 및 병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 (한국 발언)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균형이 중요함. 인플레이션 이후 집값이 엄청 올랐고, 젊은 이들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공공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경우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음. 공급 측면에서는 적정 가격 책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 가격이 중요하고, 이는 입지의 영향을 받음. 결국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Secretariat 발언)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회복력을 고려해야 할 것임. 좋은 의견 감사함

(5-2) [ITEM4.b] Spotlight on the case of the OECD Territorial Review of the Brussels-Capital Region

- (Secretariat 발표: OECD territorial review of the brussels) 브뤼셀 수도 지역(BCR)은 벨기

에 지역 중 하나로, 19개의 자치시로 구성됨. 프랑스와 독일 커뮤니티의 고밀 지역으로 기 개발지가 많고 가장 밀도가 높은 TL2 지역임. 전체의 3/4가 빌딩으로 덮여 있으며, 주택 정책과 주택공급 위치에 있어 시시점이 높은 지역임. BCR만의 종합 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주택위기에 직면함. 저렴한주택 부족 및 주택의 질 문제가 발생했으며, 주택가격이 너무 오른 반면, 사회주택이 부족하고 공간 규모나 연식 면에서 질 좋은 적합한 주택이 부족함. 제한된 토지 부유량으로 계획허가를 얻는 것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 또한 도시 정비나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도 높음. 이에 지역 토지이용 정책과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토지이용계획 이외에도 고밀도 등에 관심을 기울임. 2) 토지이용규제가 저렴한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2) 수도권 관점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강화함. 4) 규제와 관련된 토지이용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함. 이와 함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차량 의존성이 높고, 10분 이내에 대중교통에 접근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큼.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주택과 토지이용, 대중교통 정책을 연결. 2) 20분 도시 정책으로 접근성 제고. 3) 수도권 교통 계획을 개선하고, 교통 부분에서 새로운 재정모델을 개발. 4) 디지털 연결을 교통 전략에 포함.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복잡한 거버넌스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복잡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중복된 협조 체계, 수도권 거버넌스 합의 부족 등이 심각함. 이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조정. 2)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메카니즘 개발. 재정적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세수는 늘고 있으나, 특히 지역 부채가 심각해짐. 따라서 녹색 전환 등에 있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 이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BCR 지역에 대한 보상과 공공투자를 정부 위계에 따라 통합하고, 맞춤형 펀딩을 통해 수도권 협력을 지원하고 지자체간 세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BCR 대표단 발언) 우리는 주택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OECD의 제안에 감사함. 경제에 있어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움을 해결할 자원이 부족함. 많은 사람들이 BCR 내에 거주하나 일자리는 외부에 있는 브뤼셀 패러독스로 인하여 자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음. 반면 수도권 단위의 거버넌스가 없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함.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OECD의 분석 결과가 유용할거라 생각함. 특히 다른 수도권과의 비교 결과가 활용성이 높음.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보고서임

- (International peer reviewer 발언) 함부르크 수도권 지역에 대한 2019 OECD 연구와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분산된 지역을 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함. 이는 결국 실질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임. 우리는 OECD의 제안에 맞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우리 사례이 비추어 볼 때, OECD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 성공적인 지역정책 리뷰였음

- (의장 발언) 보고서를 승인함

(5-3) [ITEM4.c] Addressing the demographic transition and building cities for all ages

- (Secretariat 발표) OECD 사무국은 G7 일본 의장국을 위해 준비한 인구변화에 대한 보고서와 '전 연령을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임. 전 연령을 위한 도시에서는 인구변화와 위기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포용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할 예정임. 이와 함께 인구변화를 도면화하고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예정임

제49차 지역개발정책(Regional Development Policy)위원회 회의 (RDPC)

1. 회의명

- 제49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16일(목), 9:30 ~ 18:00
- OECD Room CC04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확인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김명현 사무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미래를 위한 장소 기반 정책 (Place-based policies for the future)
- 작업반 지원 및 네트워크 관련 보고 (Reporting back from supporting Working Parties and Networks)
- 국가 도시정책 관련 세계 정세 업데이트 (Update on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ies)
- 지역 개발 정책 권고안의 보급 및 이행의 후속 단계 (Next steps in the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논의 및 정책 영향력 (RDPC communication and policy impact)
- 2023 '미국 농촌 혁신 강화' 보고서 발간 (Launch of the OECD 2023 report Enhancing Rural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
- 글로벌 관계 (Global relations)
-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장소 기반 정책 (Place-based policies for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5. 주요 논의내용

(1) Opening session

- 의제와 요약기록에 대한 승인 요청 후, 승인
- 지난 6월 회복력과 관련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한 펀딩과 파이낸싱, 재건 문제에 대하여 논의. 넷제로나 기후변화 위기 등의 주제는 모두 내일 세션에서 논의 예정임. 이 외에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농촌 혁신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도 논의 예정임
- 내년도 사무국 지정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직에 대한 입후보자 모집 후, 후보자 발표 예정

(2) [ITEM3] Place-based policies for the future

- (Secretariat 발표) 많은 OECD 나라에서 지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역 규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화됨. 장소 기반 정책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논의 (OECD-EU 세미나)를 하였고,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한 근거와 어떤 상황, 어떤 지역에 사용해야 하는지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함.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증거가 장소 기반 정책의 진화를 뒷받침. 특히 환경적 문제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트렌드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의 진화는 환경적, 혜택 대상, 외부효과 등 많은 영향들을 고려하여야 함. 향후 장소 기반 정책은 사전예방적으로 사용되며,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적용이 가능함
- (팬데믹 이후 바이던의 지역 정책에 대한 간단한 발표, Keynote speech from lead academic)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 투자가 필요해짐. 특히 초고속 인터넷이나 교통, 식수 공급 등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투자하고 있으며, 모든 주에서 청정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것들이 장소 기반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Secretariat 발언) 각기 다른 부분에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들이 통합되고 있음. 예측을 넘어선 결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생각됨
- (유럽연합 발언) 국가와 지역이 각기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소 기반 정책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콜롬비아 발언) 장소 기반 정책은 저개발 국가와 지역의 사회적 결함을 위해 적용 가능함
- (한국 발언) 현실 기반의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함. 우리는 지방 혁신을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코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도시와 농촌 양쪽에서 저렴한주택(affordable housing) 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젊은이와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안정에 필요하기 때문임
- (일본 발언) 일본 버전의 장소 기반 정책으로 농촌 소멸에 대한 대응책이 있음. 고령사회에 따라 주요 산업이 쇠퇴하였고, 이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도시 르네

상스(urban renaissance) 정책을 추진 중임. 해당 정책의 평가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로 측정함

- (호주 발언) 더 좋은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정부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협력은 정부와 비정부 파트의 역량이 중요함
- (의장 발언) 서비스 분배나 기회의 투자 등등이 필요함. 거버넌스의 융합 역시 필요한 요소임. 중앙 정부는 매우 전략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 관계자(actor)들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전략을 공유해야 함. 지역 수준에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는 등, 장기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중요한 방법임

(3) [ITEM4] Reporting back from supporting Working Parties and Networks

- 2023년 RDPC 작업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 (Alessandro Alasia, Chair of the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발언) 데이터 기반의 결과 도출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 개발이 필요함. 최근 지역 지표(region indicator)로 모바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이나 투어리즘 관련 정책에 유용함. 우리는 서비스 접근성 측정에 대하여 방법론 문제, 정책의 적용, 관련성 등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함. 접근성 측정은 인구구조 변화 등과 연계 가능하며, 특히 소도시의 인구구조 변화, 소멸도시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밀접한 문제임. 또한 인구변화에 대하여 이민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호주에서 이민이 혁신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확인함. 이 외에도 벨기에 수도권 정책(Brussels-Capital Region)에 대한 워크숍, OECD 기후행동의 영향과 넷제로로의 전환, 접근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Elisa Vilares, Chair of the 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발언) 도시의 미래, 특히 디지털화(digitalisation), 주택 문제, 교통수단의 역할, 순환경제, 다양성, 글로벌 밸류체인, 웰빙, 푸드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함. 디지털 전환과 회복력을 위한 기후행동은 2030까지의 목표로 할 수 있으며, 도시-농촌 개발을 위해 장소 기반의 정책이 필요함. 스마트시티, AI, 머신러닝 등의 기술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활용 가능함. 장소 기반 접근은 탈탄소 빌딩, 저렴주택 문제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 가능함. 수도권은 개발지역과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함. 이제부터는 기존 빌딩에 초점을 맞춰야 함.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주택 문제나 전 연령을 위한 도시, 젠더 불평등 등은 AI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함
- (Peter Wostner, Chair of the Working Party on Rural Policy 발언)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응 : 1) 농촌 지역의 재난재해 관리. 농촌의 재난재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여러 사례를 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 2)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이나 에너지 등에 있어 농촌에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장소 기반의 접근임. 캐나다 리포트에서도 나오 듯이 도

시나 농촌에서도 젠더 이슈가 나오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에 농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웰빙에 초점을 맞춰 미래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함. 3) 정책은 도심과 농촌의 차이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함.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야함. 특히 농촌 지역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4) 혁신을 통하여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미국의 농촌 혁신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무엇이 농촌에 이점이 될지에 대하여 생각함. 디지털 트윈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기회와 잠재력을 최대화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에 함께 적용 가능할 것임

- (이스라엘 발언) 현재 재난 재건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작은 커뮤니티인 키부츠의 경우 농업 중심이며, 투어리즘, 오픈 스페이스, 농업 등에 특화되어 있음. 현재 사회적 복구에 힘을 쏟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 수준의 사회적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 지역을 연결하는 스페셜 코디네이션이 필요함. 또한 우리는 단기·장기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머무를 곳이 필요함. 현재는 호텔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음. 작은 농촌 마을은 사회적 연대가 강함. 즉각적 해결방안으로는 다른 마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함. 앞으로 할일이 많음

(4) [ITEM5] Update on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ies

- (Secretariat 발표) 국가 도시 정책(NUP)을 모니터링 한 결과, 그동안 다양한 개념들이 반영되면서 변해왔으며, 우리가 2018년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계속 변화되었고, 현재 3차 버전을 준비 중임. 조사(survey)는 현재 5개 항목(1) NUP의 성격, 2) NUP가 다루는 주제와 글로벌 아젠다에의 공헌, 3) NUP의 실행, 모니터링, 평가, 4) 회복력, 5) 주택)에 대해서 준비 중임. 지금까지 31개 OECD 국가, 36개 비OECD 국가가 조사에 응답함. 어제 우리는 명시적(explicit)·암묵적(implicit) NUP에 대해 논의함. 현재 31개 OECD 국가 중 27개 국가가 NUP를 가지고 있으며, 명시적 계획이 더 많음. NUP에서 다루는 회복력은 다양한 분야로 나뉘는데, 대체로 환경적 질과 기후 행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생태적·기후적 회복력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 외에는 사회적 회복력에 대해서도 언급함.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저렴한주택과 지속가능성, 주택의 질이 NUP에서 다루는 가장 주요한 이슈임. 내일은 국가 정책과 주택정책의 분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앞으로 우리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NUP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다음번 미팅(2024. 5)에서 논의할 예정임
- (WPURB 의장 발언)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함. 중요한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임. 협업과 다층적 대화가 중요함
- (영국 발언) 발표 내용 중에 정의(definition) 문제가 있음. 무엇을 암시적이라 할 것인가?

(4) [ITEM6] Next steps in the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의장 발언)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권고안에 대하여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하고 있음. 4개 그룹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대표자들은 간단하게 결과를 보고해주시 바람
- (Secretariat 발표) 현재 권고안은 영어와 불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됨. 여러 그룹에게 협력적 실행방안을 제시함. 권고안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액션 기반의 가이드, 온라인 플랫폼, 성공사례, 그 외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과 툴킷 등의 형식으로 OECD가 지원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참여를 위한 플랫폼인 미로보드가 대표적인 (<https://miro.com/app/board/uXjVNP-pPtk+/> pw OECDRec2023)
 - (그룹1 대표 라트비아 발언) 권고안은 국가-지역(region)-도시(city)-지방(local)-커뮤니티 등 수준을 다양화하여 제안해주는 것이 좋음
 - (그룹2 대표 이탈리아 발언) 온라인은 상호대화형(interactive) 수단임. 패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 좋으며, 툴킷은 매우 유용함
 - (그룹3 대표 페루 발언) 소셜미디어, 툴킷, AI는 빨리 적용될 것이라 생각함. 결국 무엇이 정책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함. 지표의 경우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음. 특히 정책 실행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누가 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활용방안이 다양해질 것임
 - (그룹4 대표 이스라엘 발언) 미로보드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툴임. 같은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으며, 성공사례를 듣고, 성공 뒤에 있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음. 가장 중요한 주제,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는데도 편리함. 디지털 포맷이나 스마트 리서치 등 다양한 수준과 주제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음. 오피셜 문서의 교류도 가능함. 하지만 조금 시간소모적 이므로 좀 더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체크리스트는 매우 유용함. 각 나라들이 각자 맞는 배경에 따라 적합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유연한 툴임
 - (Secretariat 발언) 제안들을 반영할 예정이고, 다음번 회의에서 마저 논의할 계획임

(5) [ITEM7] RDPC communication and policy impact

(5-1) [ITEM7.a] Item 7.a. On the road to the 5th RDPC Ministerial

- (Lead speaker, 폴란드 발표) 현재 전 세계적 경제 순위 재편성 과정에서 좋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장소 기반 국토 정책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 각 국가 간 교류가 필요하고, OECD는 국토 정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교류의 장을 제공함.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개발정책을 재편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토 회복력 제고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 이러한 상황에서 OECD 장관급 회의를 2025년 5월 폴란드에서 열기를 제안하며, 이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기회라 생각함. 본 회의에서는 1) 국토 정책이 글로벌 경제 순위 재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하고 있으며, 2) 장소 기반 지역 정책이 전 세계적 과제를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람
- (캐나다 발언) 회의를 통하여 지역 개발을 넓힐 수 있으나, AI의 영향력을 간과한 것 같음. 디지털화가 중요한 문제이며, 휴먼 커넥션 역시 매우 중요할 수 있음. 웰빙이나 밸런스에 대한

타임 프레임이 필요함.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임

- (미국 발언)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 미국의 경우 평등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지역 간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과 지역의 경제 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특히 지역-지방-도시 정책의 연계가 중요함. 또한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지도 고민이며, 국가 안전도 문제임
- (프랑스 발언) 탄소 전환과 포용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는 주제임. 특히 해변도시는 기후변화에 있어 문제가 심각함.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음
- (일본 발언)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위해서는 넷제로가 중요하며, 일본에서는 다음번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랍. 지속가능성과 넷제로를 위해서는 녹지의 적절한 제공이 필요함.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는 OECD 멤버와 아닌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함. 우리는 디지털화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장소 기반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인구변화와 에이징, 소멸에 의한 빈집 문제, 데이터 공유 등이 필요함
- (폴란드 발언)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할 예정임. 제안에 대한 의견 고마움
- (의장 발언) 해당 사안은 다음해에 더 논의함

(5-2) [ITEM7.b] Regional Outlook dissemination and tracking RDPC impact

- (RDPC impact annual update: Director 발표) RDPC의 활동은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가능한 콘텐츠나 톨킷 등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고, G7, G20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이끌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관심을 찾아 결과를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영향력 증대를 위해 진화되고 있음. G20, G7, UN을 비롯한 다자간 정책 토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나라에서 지역 간 불평등 관련 논의가 보도됨(약 20개 기사). 이 외 여러 나라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보급되고 있음. 어떻게 RDPC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문제임
- (우크라이나 발언) 디지털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함. 디지털 복원은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개발에 대해 대규모 기금이 필요할 것임
- (미국 발언) 미국 대표단은 RDPC의 활동은 국가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 주제에 대하여 지역과 주(state) 단위에서 공유하고자 함. 오늘 배포한 유인물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The report enhancing rural innovation in the US)을 나누고 싶음
- (터키 발언) 오피셜 레터가 우리가 행동하는데 매우 도움이 됨. 소셜 미디어 같은 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보급도 생각해보기를 바랍
- (Director 발언) 다양한 수단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정치 포럼은 몇몇 나라가 자발적으로 제안함